

중앙당 배심원이 승패 갈랐다

민주당의 시민공천배심원제 공정성 논란이 식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린 민주당 은평구청장 후보 경선에서는 전문배심원의 표심이 승부를 갈랐다.

특히 이날 경선은 민주당이 개혁공천을 기치로 내건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처음 선별 자리였을 뿐 아니라 오는 10일 열리는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과 동일한 '융합형 시민공천배심원제'(시민배심원 투표 50% + 정당원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열린 것이어서 광주시장 후보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은평 시민공천배심원제 결과는= 이날 경선에서는 김우영 전 이미경 국회의원 보좌관이 은평구청장 후보로 선출됐다. 전 당원 여론조사 결과는 김우영 후보(43.2%)가 서울시의원 출신의 김성호 후보(56.8%)에 뒤졌으나 배심원단 투표 결과, 김우영 후보가 배심원 118표 중 74표(62.7%)를 얻어 44표(37.3%)를 얻은 김성호 후보에 역전했다. 함께 결과, 김우영 후보는 52.95%, 김성호 후보는 47.05%를 각각 득표했다.

■민주 배심원제, 서울 은평구청장 경선 첫 시행

여론조사 앞선 후보 역전패... '당심 작용' 후보에 유리

광주시장 예비 후보들 배심원단 출석을 계산 등 분주

문제는 이날 전체 배심원 212명의 참석률이 55.6%에 불과했다는 점, 특히 외지인인 전문배심원이 70% 이상 참여했지만, 현지 배심원은 30%대의 출석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예초의 예상대로 전문배심원

의 표심이 전체 경선의 판세를 좌우했다.

시민공천배심원제가 도입되자 당 일각과 상당수의 출마 입지자들은 전문배심원단의 표심이 승패에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존 정치인보다는 시민사회활동을 해온 인사나 당심이 작용한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라던 예측을 해왔다.

이날 승리한 김우영 후보는 당 사무총장이자 공천심사위원장이 이미경 국회의원의 보좌관이었던 뿐 아니라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기획위원을 지내 중앙당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비춰져 왔다.

한편, 이날 배심원단 경선은 시작 전부터 현지 배심원단 참여율이 낮자 김성호 후보 측 인사들이 불만을 터뜨리며 중앙당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였을 뿐 아니라 최종 결과가 발표된 후에도 결과에 승복할 수 없으며 강력히 반발했다.

◇광주시장 후보 경선은=서울 은평구의 경선 결과는 일주일여 다가온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는 것이 일반적 지적이다.

우선 그동안 모든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고수해온 강운태 의원 측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강 의원은 당원의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위원장직이 중립을 지킬 경우 당원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지만 전문배심원단 투표에서는 은평구처럼 밀릴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현지 배심원의 출석률이 낮아질 경우 그 확률은 더욱 위위를 지내 중앙당의 지원을 받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난 3일 오후 광주시 동구문화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광주 동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당원들이 투표하고 있다. 동구청장 후보 경선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에서는 처음 치러진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민주당 광주 동구청장 후보 유태명 확정

6·2 지방선거 민주당 광주 동구청장 후보에 유태명 동구청장이 확정됐다.

유 청장은 지난 3일 광주 동구문화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광주 동구청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국민참여경선 선거인단 대회에서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 지지율을 합산한 결과, 68.7%

(여론조사 64.7%, 당원 직접투표 72.7%)를 획득해 31.3%(여론조사 35.4%, 직접투표 27.3%)를 얻은 조영복 예비후보를 눌렀다.

이날 치러진 당원 선거인단 직접 투표에서는 859명의 선거인단 중 444명(투표율 51.68%)이 투표에 참가해 유

청장이 320표(72.07%), 조 예비후보가 120표(27.03%)를 각각 얻었다.

여론조사에서는 유 청장이 64.7%, 조 예비후보가 35.4%를 얻었다. 유 청장은 후보 수락 연설에서 "6월 본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서 최선을 다해 승리해 동구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꿈이 있는 동구를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당 전남 기초단체장 15곳 경선 후보 압축

전남지역 민주당 22개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자들이 속속 압축되고 있다. 4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경선 후보들이 2배수, 3배수로 압축된 곳은 목포와 나주·화순·담양 등 10곳이다. <표>

목포는 정종득·홍영기·최기동 등 3명의 후보가 최종 경선을 치를 예정이며, 나주도 임성훈·강인규·이길선 후보가 최종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게 된다. 또한, 4명~6명의 후보가 난립하고 있는 순천과 해남, 광양, 진도 등은 조만간 여론조사와 면접 등 1차 경선(컷오프)을 통해 후보를

2~3명으로 압축할 계획이다. 신안은 전략공천 지역으로, 영암과 함평은 재심신청 지역이어서 최종 경선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았다.

중앙당 시민배심원제도 적용 지역인 무안은 서삼석·정해균 등 2명이 최종 경선 후보로 결정됐으며, 시민배심원제도 50%가 적용되는 여수도 김강식·오현섭·배성기 등 3명이 최종 경선 후보로 선정됐다.

민주당은 5일 열리는 중앙당 최고 위원회에 의결을 거쳐 이들 최종 경선 후보자에 대한 경선을 할 예정이 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 기초단체장 최종 경선 후보

| | |
|----|--|
| 지역 | 경선자 |
| 목포 | 정종득·홍영기·최기동 |
| 여수 | 김강식·오현섭·배성기 ※시민배심원제50%+당원여론조사50% |
| 나주 | 임성훈·강인규·이길선 |
| 강진 | 국령애(女)·강진원 |
| 고흥 | 박병중·장철우 |
| 곡성 | 조형래·유근기·이영진 |
| 구례 | 서기동·박인환 |
| 담양 | 최형식·강종문·유창종 |
| 무안 | 서삼석·정해균 ※시민배심원제 지역 |
| 보성 | 정종해·이택우·김철우 |
| 영광 | 정기호 ※단수후보 |
| 원도 | 김종식·김신·박현호 |
| 장성 | 김양수 ※단수후보 |
| 진흥 | 이명훈 ※단수후보 |
| 회선 | 전원준·임호환·이문준 (영암·함평=재심신청, 신안=전략공천지역) |

이정일·남평오 '컷오프' 재심 신청

민주당 광주·전남지역 기초단체장 경선에 앞서 실시된 후보압축 과정에서 탈락한 일부 후보들이 잇따라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중앙당에 재심 신청을 하고 있다.

4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경선 후보자 압축과정에서 탈락한 이정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 남평오 북구청장 예비후보 등이 중앙당에 재심

을 신청했다.

광산구청장 경선 후보 압축과정에서 탈락한 이정일 후보는 "광주시당 수석 부위원장을 맡아 헌신했는데, 이런 부분은 반영되지 않고, 당 대표 표창에 대한 가점이 전체 점수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배점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북구청장 후보 압축과정에서 탈락

한 남평오 후보도 지난 2일 중앙당에 재심 신청을 했다. 남 후보는 "국가유공자 가점은 적용하지 않으면서 당 대표 표창 가점은 높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에서는 김성호 함평군수 예비후보와 김원배 영암군수 예비후보가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이들은 20년 전 전과기록은 평가에 적용하지 않으면서 17~19년된 전과는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세간에 '민주당 공천하듯 한다' 조롱 난무 영터리 시민배심원제 명분·공정성 없다"

목포 은 백의준군 천정배 의원 지도부 맹비난

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당 지도부의 지방선거 후보 공천 방식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세간에 '민주당 공천하듯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원칙과 일관성이 없어 공당으로서 부끄럽다는 것이다.

지난 3일 고향인 목포를 방문한 천 의원은 특히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서만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한 것은 아무런 명분이 없다"며 "시민공천배심원제는 특정 후보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지도부 개입론이 제기되는 등 공정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갑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시며 얻은 경험과 정치적 좌절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로 새로운 도전에 나서겠다"고 강조, 7월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다음은 일본일당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소통이 미흡하다.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당이 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야권연대다.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지만 지도부가 독단적으로 진행하면서 오히려 일이 꼬이고 있다. 지도부가 먼저 희생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모두의 리그를 만들어 당 내부의 동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통 큰 지도력이 필요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

보 경선 방식에 대한 논란이 크다. -최근 세간에는 원칙 없이 오락가락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 공천하듯 한다"고 말한다. 그만큼 경선 틀에 일관성과 원칙이 없고 준비가 안됐다는 지적이다. 공당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됐다.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서만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한 것은 아무런 명분이 없다. 지도부에서 정치적 상징성을 얘기하는데 설득력이 없다. 특히,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서의 시민공천배심원제는 특정 후보에 유리할 수 있어 지도부 개입론이 제기되는 등 공정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시대의 흐름이나 시대적 요구를 어떻게 본다.

-적극적 복지가 화두라고 본다. 경제를 바탕으로 하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심화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을 완화시켜야 한다. 특히, 저출산 현상을 타개하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인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호남은 천 의원에겐 어떤 의미인가.

-단순히 고향을 넘어 늘 나를 성찰하게 하는 의미로 정의할 수 있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호남은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도 민주, 인권, 평화, 통일 등 시대의 가치를 위해 헌신해 왔다. 호남은 나의 자부심이자 근원이며 새로운 출발을 위한 토대다. 많은 질책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목포=임동욱 기자 tuim@/사진=김진수기자 jeans@

토지 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가 : 40억 5000만원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C 입구)

▷ 동산대 ~ 나주.C-국가산업단지 (4차선도로확장.확정)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호등록 : 41-0163369호 •

☎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원사거리)

하나은행 하나캐피탈 대출

- ◆ 마니또론 신용대출
 - 직장인, 전문직, 사업자, 프리랜서 등
 - 추가대출, 대환대출, 채무통합, 신규대출 (7.5% 고정금리로 4년분할상환)
- ◆ 아파트론 - 무담보 아파트대출
 - 근저당설정없이 추가대출가능
 - 소득증빙 無, 무직자, 주부도 가능

소액필요한데 근저당설정하기 귀찮으시죠? 하나캐피탈 아파트론 이용하세요

하나캐피탈은 하나은행과 한가족입니다!

www.hanacapital-manitoloan.co.kr

하나금융그룹 공식상담사 안광호 팀장

☎ 010-4041-1121

위 상담사는 여신금융협회에 정식등록된 상담사입니다

무인빌 매각공고

- ◆ 대상
 - 위치 광주 북구 유동 105-1외 (LG서비스 센터 뒷)
 - 매매가는 상담 후 결정
- ◆ 특징점
 - 최근에 신축한 시설이며 객실은 20개임
 - 도로에 인접해 있어 고객이용이 편리함
 - 인테리어는 최고의 품질을 자부함
 - 매출 수익보장, 유동인구 많음
 - 홈페이지 개설운영, 최첨단 드라이브인

연락처 : 010-5614-1126

회사매각공고

- ◆ 위치
 - 광주 광산구 오선동 270-112번지 (하남산단 6-7번 도로 사이)
 - 삼산알미늄(주) 알미늄제조(압출) 공장
 - 연매출액 100억
- ◆ 특징점
 - 하남산단 위치하며 공장시설은 최신설비이고 자동화 시스템임
 - 공장은 법인(영업권) 포함하여 일괄매각함

문의 : 062-523-0004